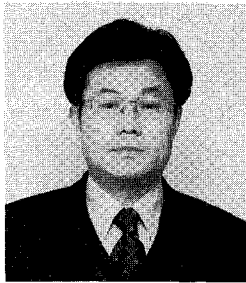


2002년도 가금질병 발생현황과 대책



김 재 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
수의학박사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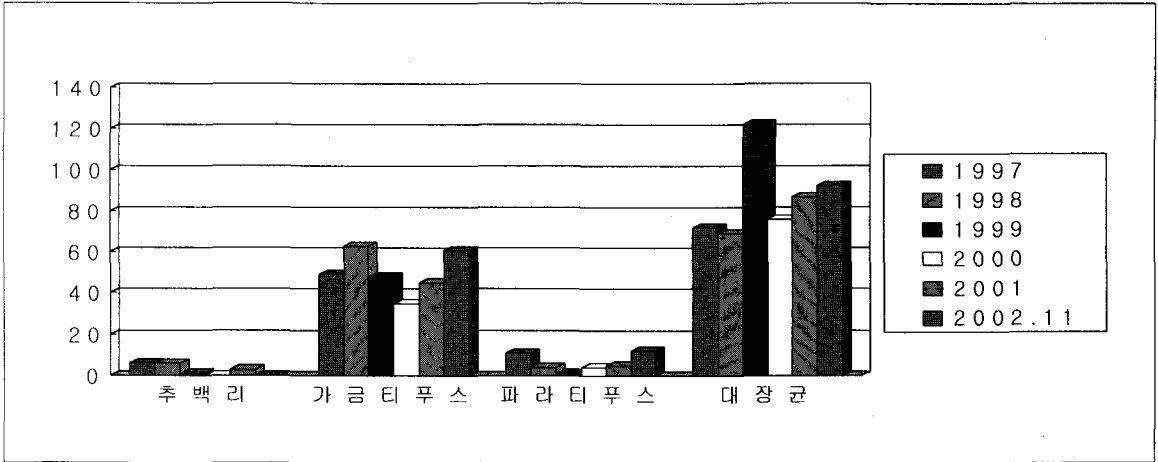
2002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이 진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구촌은 세계화다 개방화다 하여 해마다 엄청난 변화로 출렁거리고, 우리 양계업계도 예외 없이 외국의 축산물 또는 축산시장 변화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논란이 없었던 해가 한 해도 없었지만 올해 전반기에는 특히 뉴캐슬병과 가금티푸스에 의한 피해가 심하였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유래없이 육계 병아리 값이 비싸게 형성되어 비위생적이거나 허약한 병아리, 심지어 살모넬라에 난계대전염된 병아리마저 유통됨으로써 질병이 더욱 만연되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매년 전반기에 뉴캐슬병 예방접종이 소홀하였던 점도 뉴캐슬병을 확산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한 해를 마지막 장을 넘기는 시점에서 2002년도 질병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새해에는 어떤 각오로 가금질병 방역에 임해야 할 것이지 살펴보기로 한다.

2. 2002년도 가금질병 발생 현황

'02년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에 병성감정을 위하여 의뢰된 가검물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최근 몇 년간의 질병 발생동향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병성감



〈그림1〉 연도별 주요 세균성 질병 검색을

정 결과가 전국적인 발생상황을 온전히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생 추세나 야외상황을 유추해 보기는 충분하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 세균성 질병

'02. 11월 현재 주요 세균성 질병 검색률을 보면, 가금티푸스와 대장균증이 대표적인 질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느 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그림 1). 다만, 가금티푸스의 경우, 최근 몇 개월 간은 큰 폭으로 줄었는데 전반기 발생건수가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 '01년보다 높은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다. '02년 10월 말 현재 농림부의 질병 발생 누계를 보면 추백리 2건, 가금티푸스 79건의 발생건수를 기록하여(표 1) 추백리의 발생은 줄어드는 대신 가금티푸스는 여전히 다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추백리와 가금티푸스균

은 유사한 살모넬라균이 원인으로써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은 줄기 마련인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양상인지도 모른다.

대장균증은 특정시기의 유행상황을 반영한 다기 보다는 종계장과 부화장 및 양계장의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질병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유입되어 피해가 나타났다는 개념이 아니므로 종란 위생, 부화장 위생, 양계장 사양환경 개선 등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복합만성호흡기병(CCRD)을 일으키는 마이코프라스마는 이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혈청검사에 의한 항체양성률을 보면 철저한 차단방역에 의하여 특별관리되고 있는

표1. 2002년도 가금티푸스 및 추백리 발생 보고 현황(10월 현재)

질병명	월 별 발생 건 수(발생수수: 단위 천수)										계
	1	2	3	4	5	6	7	8	9	10	
가금티푸스	6(68)	2(62)	5(11)	3(31)	8(137)	12(163)	7(197)	10(187)	14(353)	12(221)	79(1,429)
추백리			1(2)							1(0.1)	2(2.2)
계	6(68)	2(62)	6(13)	3(31)	8(137)	12(163)	7(197)	10(187)	14(353)	13(221)	81(1,431)



지금은 개선되었으나 정부에서 공급하는 백신량이 부족하였던 점, 또 육계와 백세미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하여 봄부터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육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백신이 매년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거나 연말에 이

양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양계장이 이균에 감염되어 있으며, 다른 질병과의 복합감염, 위생관리, 쾌적한 사양관리 등의 요인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

2) 바이러스성 질병

그림 2에서 보듯이, 뉴캐슬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병이 그 전 5년간에 비하여 줄어든 경향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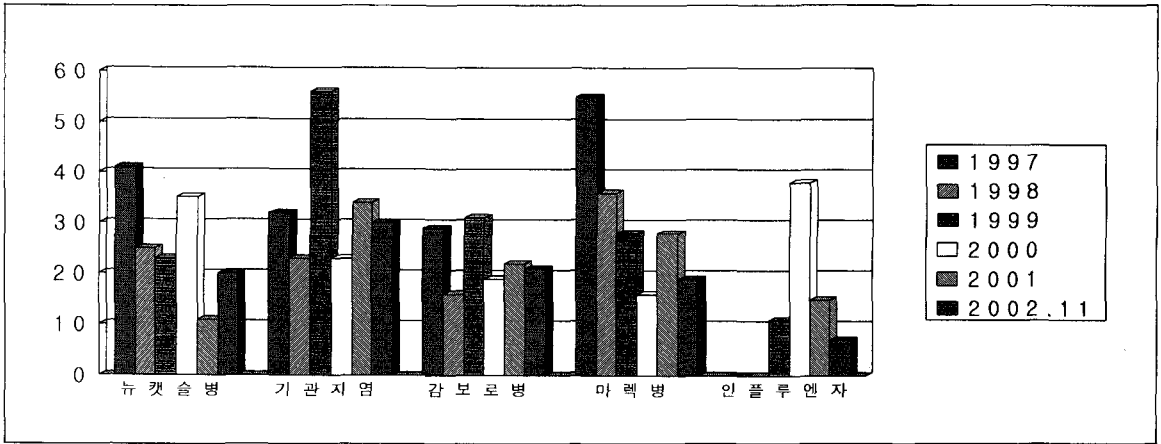
뉴캐슬병의 경우, '97년과 2000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에서 뉴캐슬병 근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독백신을 부화장과 육계농장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방역을 추진해 온 점을 감안하면 '02년도의 발생 증가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 공급되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나마 부화장 및 육계농장(백세미농장 포함)에서 백신접종을 기피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하여 면역이 불충분했던 점도 만연의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6건의 발생을 보여 '02년도 전국 뉴캐슬병 발생건수의 61%를 차지하였다(표 2).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남지방에서 뉴캐슬병이 만연되기도 하였지만 전남지방의 한계 열주체에서 발생신고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다른 도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았을 발생사실이 거의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전남의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해의 발생건수는 '01년도 수준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가금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발생빈도가 줄



〈그림2〉 연도별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 검색율

어늘고 있으나 실제적인 야외상황에서는 상당히 만연된 지역도 있을 것이다. 전남북 일대와 경남 일대에 많은 유행이 있었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혈청검사 결과 상당수가 가금인플루엔자가 아닌 다른 질병 때문일 것으로 판명되었고, 오히려 경기, 충청도 일대의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아직 국내에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존재하거나 변이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닭 전염성기관지염은 '00년까지 감소를 하다가 '01년과 '02년에 다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02년에는 야외에서 호흡기형 외에 신장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장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앞으로의 대책

정부 차원에서도 뉴캐슬병과 가금티푸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을 시행하여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양계협회나 양계농가에서도 강력한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을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새해에도 2002년과 같이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다면 가금질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각종 법규의 제·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예방접종 점검, 병계 유통금지, 종계장 및 부화장과 도계장의 위생관리 감독 강화, 소독 실시 점검, 계열화 주체에 대한 방역지도 의무

표2. 2002년도 지역별 뉴캐슬병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00	20	8	8	5	24	7	8	2	2	84
'01	7	4	1	4	10	8	5	1	0	40
'02.11	9	2	8	3	1	46	2	4	0	75
계	36	14	17	12	35	61	15	7	2	195

강화 등을 통하여 다각도의 방역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한양계협회나 계

육협회 및 양계농가 등 관련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방역대책은 무의미하다. 제 3자가 아무리 외친들 정작 사육 당사자의 호응이 없다면 방역은 헛구호일 뿐이며, 괜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항상 질병이 발생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풍토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농가에서는 철저한 차단 방역을 바탕으로 하여 예방접종과 소독을 병행해 나가는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협회 차원에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종계장과 부화장의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적 사업의 주체가 되어 국가기관의 제도적, 예산적, 기술적 지원과 양계업계를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개별적 농장의 방역관리는 당연히 농장주의 몫이다. 동참하지 않는 권리 요구나 문제 제기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며 단지 배를 산으로 가게 만들거나 바쁜 길을 가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질병별로 세세한 방역의 각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경기도 김포지역에서는 지금도 돼지콜레라가 2~3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 축산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에서도 발생농가를 비롯한 반경 500m 이내의 양돈농가는 모두 살처분하고 철저한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겨울철이라 초동방역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겨울철에는 소독약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 소독약의 선택에 매우 제한을 받으며(많은 소독약이 온도가 낮아지면 효과가 없거나 낮아지므로 저온에도 효과가 있는 소독약 선택 필수), 추위 때문에 함부로 소독약을 몸에 뿌릴 수도 없을 뿐더러, 도로에 뿌릴 경우 자칫 빙

판길이 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방역과 소독의 효과가 여름철과 같이 충분히 나타나기 어려우며, 더구나 돼지 콜레라, 구제역, 뉴캐슬병 등과 같은 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아지면 환경에서의 생존력이 더욱 강해져 한 번 오염되면 훨씬 오래 생존하므로 그 만큼 환경으로부터 접촉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차단방역의 원칙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독에 의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농장을 출입하는 각종 차량과 사람 또는 작업반이 어떤 통제나 소독조치 없이는 농장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차단방역 개념이 어떠한 방역조치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4. 맺는말

이제 2002년도 역사는 서편으로 저물었다. 밝아 오는 2003년은 우리 축산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양계 송년호를 통해 2002년도의 10대뉴스가 이미 보도되었으며, 지면을 통해 종계장·부화장 등록제, 축산법 개정으로 자조금 실시의 기틀이 마련 등이 보도되면서 양계업계의 큰 틀이 바뀌는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

그런 제도의 변화에 걸맞게 우리 양계업계도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20년 전부터 이제까지 지겹게 반복해 왔던 말을 2003년 말 쯤에 또 되풀이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 양계업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새해에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병아리가 알을 깨듯 과거의 틀을 벗고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하자. **양계**